

수형자 교정에 대한 개념분석

정현옥¹, 한승우^{2*}

¹대구지방교정청 상주교도소 정신전문간호사, ²경일대학교 응급구조과 조교수

A Concept Analysis of Prisoner Correction

Hyun-Ok Jung¹, Seung-Woo Han^{2*}

¹Psychiatric Mental Health Advanced Practice Nurse, Sangju of Correctional Institute,
Daegu of Local Correctional agency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Kyungi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수형자 교정에 대한 개념분석을 통해 그 속성을 파악하고 개념을 명확히 하여 간호중재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011년에서 2015년까지 발표된 국내의 수형자 교정에 대한 연구문헌을 PubMed, NDSL RISS을 이용하여 2016년 4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검색하였다. 37편의 문헌을 Walker와 Avant의 개념분석방법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수형자 교정의 속성은 응보, 자기성찰, 긍정적인 문제해결, 재사회화로 나타났다. 수형자 교정의 정의는 법에 위반되는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행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과학적이고 개별화된 형벌을 집행하고, 수형자의 내면적 성찰을 통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으로 문제해결과 사회적응능력의 향상,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한 재사회화와 범죄로부터 국민과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수형자 교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치료적 교정을 위한 간호중재프로그램 개발 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주제어 : 수형자, 교정, 개념분석, Walker와 Avant, 재사회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by analyzing the concept of prisoner correction. From April 1st, 2016, to July 30th, the research literature on all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isoner correction from 2011 to 2015 were searched using PubMed and NDSL RISS. 37 documents were analyzed according to conceptual analysis method procedures by Walker and Avant. In order to promote a positive attitude toward life through internal reflection of prisoner correcti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for improvements in problem solving abilities, social adaptation abilities, re-socialization and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and society to inmates displaying anti-social and moral behaviors that violated the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 desirable direction for prisoner correction, and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Key Words : Prisoner, Correction, Conceptual Analysis, Walker and Avant, Resocialization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최근 10년 동안 성폭력사범은 104.7%, 마약·대마·향정

신성의약품과 관련된 마약류사범은 33.5%, 정신장애범죄자는 46.7% 증가하는 등 인간의 불안정한 심라·정서적 문제와 관련된 범죄가 증가되고 있다[1].

교정조직은 수형자에게 기본과 원칙을 적용하는 법치

* Corresponding Author : Seung-Woo Han(woowoo1200@naver.com)

Received September 11, 2018

Accepted October 20, 2018

Revised October 4, 2018

Published October 28, 2018

교정의 확립과 더불어 수형자를 처우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식하고, 소통과 공감을 통한 열린교정, 변화를 이끄는 전문교정,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교정을 위해 각종 치료적 교정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2,3].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주요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유박탈형을 중심으로 한 독립법체계를 유지한 체 치료적 교정중심의 수용처우를 추구하고 있다[2].

처벌지향적인 교정공무원은 구금관리를 선호하지만 인간지향적인 서비스 중심의 교정공무원은 재사회화를 통한 재범방지에 중점을 둔다[4]. 따라서 교정공무원 개인이 생각하는 교정에 대한 개념에 따라 교정조직 목표 달성 정도가 달라지며, 수형자에게 제공되는 처우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교정공무원들의 수형자 교정에 대한 개념정립은 단순한 조직 내의 개인의 변화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교정조직 문화의 포괄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수형자의 신체적·정신적 안녕에 기여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과거의 형벌을 부과하는 응보주의적 교정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회복적 교정[5]으로 변화되었다. 이에 교정학에 인문학적 접근을 시도하여 수형자를 인간성을 갖춘 이성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정상적인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사연구[6,7]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교정심리치료센터 및 정신보건센터[8], 전인교육을 위한 집중인성교육[9], 수용자 맞춤형 개별처우[10,11]을 위한 각종 치료적 중재프로그램을 통해 그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또한 수형자 교정의 개념을 정립하고, 전제조건 및 구성요소 등을 찾아 관련 개념들을 명확하게 정의한 연구는 없었다.

개념이란 현상을 설명하는 속성을 내포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간호이론의 주요 요소이며 이론가, 연구자, 실무자가 개념 속에 들어있는 가능성과 관심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준다. 개념분석은 애매모호한 개념을 명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개념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들이 무엇이며, 가장 본질적이지 않은 요소들은 무엇인지를 가장 필수적인 개념의 특징을 결정하는 것이다[12]. 변화하는 교정환경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교정공무원들의 수형자 교정에 대한 개념정립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 개념을 명료하게 정의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12]의 개념분석 틀에 근거하여 수형자 교정 개념의 결정적 속성을 탐색하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해함으로써 수형자 교정

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치료적 교정을 위한 간호중재프로그램 개발 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12]의 개념분석 절차에 따라 수형자 교정에 대한 개념의 속성을 파악하여 수형자 치료적 교정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있다.

2. 연구방법

2.1 자료수집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은 우리나라 교정이 수용질서와 관리중심의 교정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교정과 치료를 통한 수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본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료적 교정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시작한 2011년부터 교정심리치료센터, 수용자 정신보건센터, 집중인성교육과정, 개별처우제도가 확립된[2] 2015년까지 발표된 국내외 수형자 교정에 대한 연구문헌으로 하였다. 자료검색과 수집은 본 연구자가 2016년 4월 1일부터 2016년 7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 절차는 검색어 선정, 검색 데이터베이스 선정, 문헌검색 수행, 검색된 문헌검토, 분석대상 문헌 선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자료검색은 국외논문은 PubMed, National Digital Science Links(NDSL)로 국내논문은 한국교육학술원(RISS4U)의 학술지 및 학위논문을 “수형자 교정(Prisoner Correction)”, “수형자(Prisoner)”, “교정(Correction)”, “수형자(Prisoner) & 교정(Correction)”을 검색어로 탐색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대상 논문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포함기준

-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출판된 논문
- 국문 혹은 영어로 기술된 논문 중 전문(Full text)이 확인되는 논문
- 수형자 교정의 개념, 특성 및 속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 논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친 논문

2) 제외기준

- 특정대상, 변수, 프로그램 등을 설명하기 위해 수용

자 교정을 변수 혹은 매개변수로만 이용하고 관련 개념이나 특성은 설명하지 않은 논문

- 각종보고서나 학술대회발표(포스터 발표 포함)논문 검색엔진을 통해 총 358편(국외 151편, 국내 207편)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국외 문헌은 151편중에 초록 또는 원문을 제공하고, 논문제목, 초록에 concept를 포함한 문헌은 61편이며, 이중 중복 15편을 제외한 46편을 대상으로 포함기준과 제외기준을 적용한 결과 최종적으로 5편의 문헌이 도출되었다. 국내 문헌은 총 207편이 검색되었으며, 이 중 중복 20편을 제외한 187편을 대상으로 포함기준과 제외기준을 적용한 결과 15편의 문헌이 도출되었다. 15편의 논문 중 한국교정학회 5편, 한국교정복지학회 4편, 기타 6편으로 도출되어 본 연구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한국교정학회와 한국교정복지학회를 수기 검색한 결과 17편(한국교정학회 11편, 한국교정복지학회 6편)이 더 추가되어 국내문헌은 총 32편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국외 5편, 국내 32편의 총 37편의 논문이 최종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2 자료분석

본 연구는 수형자 교정에 대한 개념분석을 위해 Walker와 Avant[12]의 개념분석방법을 적용하였고,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개념을 선정한다.
- 개념분석의 목적을 설정한다.
- 개념의 모든 사용을 확인한다.
- 개념의 결정적 속성을 확인한다.
- 개념의 모델 사례를 제시한다.
- 개념의 부가 사례(경계사례, 반대사례, 연관사례)를 제시한다.
-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확인한다.
- 개념의 경험적 준거를 확인한다.

3. 연구결과

3.1 교정 개념에 대한 문헌고찰

3.1.1 사전적 정의

교정은 한자로 矯正로 표기되며, 좋지 않은 버릇이나 결점을 바로잡음을 의미한다. 국어사전에서는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영어로

는 Corrections are marks or comments made on a piece of work, especially school work, which indicate where there are mistakes and what are the right answers으로 표현되어 정정, 수정, 교정, 처벌의 의미를 지닌다[13]. 또한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서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미국에서 재활을 강조하는 새로운 철학적 사조에 의해 형벌학(Penology)이 교정이라는 용어로 변화되었으며, 교정실천에 대한 이론, 정책, 프로그램과 관련된 학술적인 영역으로 경찰, 검찰, 병원, 관할 교도소와 같은 정부 기관에서 범죄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처벌, 치료 및 감독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라고 하였다[14]. 따라서 교정의 사전적 정의는 개인의 부정적 행위나 절차를 수정하거나 처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2 교정 개념의 사용범위

3.2.1 사전적 정의 타학문에서의 교정 개념사용

교정을 일찍이 법학이나 행정학에서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어 왔다. 현대사회는 네트워크의 발달로 세계화·다양화되면서 개인의 가치관의 혼돈과 사회풍조의 문란 등의 역기능적 측면과 더불어 청소년 및 노인범죄의 증가, 컴퓨터 범죄 등이 증가되었다. 범죄유형이 다양화·전문화·조직화되면서 각종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자의 교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교정을 범죄자를 교화 개선시켜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내리고, 교도소나 구치소, 소년원과 같은 구금시설에 수용된 범죄자들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이들의 처우 향상과 원활한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15]. 사회복지학에서는 교정을 범죄자와 우범자, 유해환경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방법의 지식과 기술을 통해 재범방지와 사회복지, 관련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사회적 노력[16]으로 생각하고, 형벌, 집행유예, 보호관찰, 각종 프로그램과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개선하기 위한 전문적인 특수 분야로 분류하면서 교정복지를 사회복지 실천의 하나의 영역으로 넓혀가고 있다. 교육학에서는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기술을 자신의 힘으로 찾아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를 바로잡고 개인의 생활연령의 수준에 맞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 확인되어 학습자의 오답 및 오류 교정[17]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인

문학에서는 오자나 탈자를 바로 잡는다는 뜻으로 원고와 대조를 통한 검열, 컴퓨터를 통한 입력, 인출과정에서의 실수를 바로 잡는 등 책이 완성되는 단계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원고의 교정은 단순히 실수에 의한 오탈자를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학문을 정립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18].

의학에서 교정은 골절이나 탈구로 어긋난 뼈를 본래 대로 돌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수직 변형된 골반 골 불유합에 대한 수술적 교정 골 유합술[19] 등으로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에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 하지만 미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성형외과, 흉부외과, 항문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산부인과 등에서도 상사시를 동반한 간헐 외사시에서 상사시 교정에 대한 임상적 고찰[20] 등과 같은 연구도 지속되고 있다.

3.2.2 간호문헌에서의 교정 개념사용

수형자 교정은 수형자와 교정의 합성어이다. 교정관계 법령집에서는 수형자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교정이란 반사회적이고 반문화적, 반규범적인 행위를 한 비행소년이나 범죄자의 일탈적 성격이나 행동 등을 바로 잡아 재사회화 시키는 일체의 활동이다[21]. 간호학적 측면에서 수형자 교정이란 모든 범죄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교정시설에서 건강상태를 평가 받고,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신체적·정신적 간호를 도모하여 신체적·정신적 안위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교정시설에서 수형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부속의원을 개설하여 의사와 간호사로부터 이들의 의료처우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교정시설의 의료 환경은 수형자의 의료처우 욕구수준을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며, 간호업무가 교정의 중심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로 인식되고 있어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수형자의 교정처우관련 변화의 중심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치유중심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어 정신간호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22]. 이미 캐나다에서는 53개의 연방교도소에 700명 이상의 교정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교정시설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가장 큰 전문 직종으로 인

정받고 있다. 또한 수형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정시설 입소 시 건강관리요구를 평가뿐만 아니라 순회간호, 신체적·정신적 건강 간호, 응급상황 시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등 광범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교정간호라고 표현하고, 52개의 치료센터와 4개의 병원에서 입원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간호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23]. 이와 같이 간호학의 영역에서도 교정의 개념은 중요하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3.3 개념의 속성확인

개념의 속성을 결정하는 것이 개념분석의 핵심이다. 이는 개념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속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개념에 대한 광범위한 통찰력을 갖게 해준다[12]. 교정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헌을 고찰한 결과 반복해서 나타나는 개념들의 특징들을 기록하고 수형자 교정의 속성을 정리하였다.

3.3.1 수형자 교정 속성의 잠정적 기준목록

- 1) 범죄에 대한 명백한 처벌과 법에 의한 합당한 처우를 받는 것이다[21,24,25].
- 2) 자기성찰과 갱생 의지로 범죄적 사고가 감소되는 것이다[24,25].
- 3) 삶에 대한 통제력으로 왜곡된 정서와 행동 유형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21,26].
- 4) 범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24,27].
- 5)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24,27].
- 6) 수용시설 내의 엄격한 보안질서로 범죄적 행동이 친사회적인 행동으로 변화되는 것이다[16,28].
- 7) 인간적인 처우를 통해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가치를 느끼는 것이다[21,25].
- 8) 개인의 욕구에 근거한 개별적인 처우를 통해 자기 변화와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다[25,26].
- 9) 피해자와 그 가족, 자신의 가족과 연계된 모두가 고통이 있음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11,27,28].
- 10)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강한 내적동기를 부여받는 것이다[28,29].
- 11) 정체성 확립으로 삶에 희망을 갖는 것이다[27,28].

- 12) 기술과 기능습득으로 재사회화가 촉진되는 것이다[21,24-28,30].
- 13) 출소 후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여 재범에 빠지지 않은 것이다[25-27,29].

3.3.2 수형자 교정의 속성

본 연구에서는 잠정기준을 참고하여 수형자 교정에 대한 속성을 도출하였다. 확인된 수형자 교정의 속성은 응보, 자기성찰, 긍정적인 문제해결, 재사회화 4개와 14개의 세부속성으로 확인되었다.

- 1) 응보 : 처벌, 규범의식 강화, 사회질서 유지
- 2) 자기성찰 : 죄책감, 책임감,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 3) 긍정적인 문제해결 : 대인관계기술, 자기조절능력, 용서와 합의
- 4) 재사회화 : 인간성 회복, 사회적응능력배양, 재범방지, 사회통합

3.4 개념의 모델사례 구성

모델사례는 개념의 모든 속성들이 포함하고 있는 전형적인 예가 된다[12]. 32세 K씨는 직업군인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로 검찰의 상당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18회기 가정폭력 교정프로그램 참여하게 되었다(응보). 프로그램 참여 후 부부갈등은 사전 2.69점에서 사후 2.21점, 폭력은 사전 1.55점에서 사후 1.40점, 분노는 사전 2.05점에서 사후 1.92점으로 감소되었으며(긍정적인 문제해결), 자기에 대한 인식은 프로그램 참여 후 3.55점으로 프로그램 참여 전 3.05점보다 0.50점 높게 나타났다(자기성찰). 자신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에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한다고 대답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 후 가장 많이 변화된 부분은 집안에서 밝은 표정과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부부사이에 오고가는 말이 달라지니 아내도 덜 미워 보이는 것 같다고 하였다(긍정적인 문제해결). 배우자에게 하는 신체 폭력 빈도에 대해서는 교육에 참여하고 나서부터는 현재까지 폭력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편이자 아버지인 남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정폭력 없는 부부애를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는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고 표현하였다(재사회화).

3.5 개념의 부가사례 개발

3.5.1 경계사례(Borderline case)

경계사례는 관심개념의 속성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나 전부 다 포함되지 않는 사례이다[12]. 37세 G씨는 2017년 4월 19일 밤 10시경 29세 여성을 뒤에서 소리를 못 지르게 한 뒤 끌고 가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 타 때리고, 3만원을 강취 후 강간을 시도하여 강간상해로 3년의 형을 부여받고 S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8회기의 성폭력가해자 교정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응보). G씨는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솔직하게 표현하는 성격으로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대인관계가 단절되어 출소 후 주거지가 없는 상황이며, 6개월 전 이혼으로 여성에 대한 분노감이 심화되어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G씨는 프로그램 참여 이후 단순히 술기운이나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 것 같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임을 알면서도 가슴 속에 쌓인 아내에 대한 분노를 다른 여성에게 풀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피해여성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다. 피해여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죄 값을 치루겠다고 하였다(자기성찰). 무능한 남편을 만나 10년을 고생한 아내가 이혼을 간절히 원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남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 한사람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여성도 남성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여성에 대한 나쁜 생각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사회에 나가 평범하게 살기 위해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직업재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긍정적인 문제해결). 또한 남아있는 수용기간 동안에 보여준 긍정적인 모습과 원만한 대인관계로 인해 모범수형자로 선정되어 가석방되었다(재사회화의 전 단계).

3.5.2 관련사례(Related case)

관련사례는 분석 중인 개념과 관련 있는 개념의 예이지만 속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는 사례이다[12]. L씨는 2016년 11월 26일 이웃에 사는 54세 남성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나무작대기를 집어 들고 오른팔과 왼쪽 팔목 등을 내리쳐 폭행혐의로 1년 형을 받고 현재 K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2013년 1월 5일 현주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주1회, 회기 당 3시간으로 총 8

회기의 교류분석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응보). L씨는 입소 시부터 현재까지 단순한 폭행혐의로 1년이라는 형을 살아야 된다니 억울하다.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사람이 문제인데 엉뚱한 사람에게 죄 값을 치루라고 한다는 말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였다(자기성찰의 부재). 프로그램 참여기간 동안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좋고 유익한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이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함께 참여한 수행자들이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하고 나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수용생활에의 대인관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면서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할 때마다 거짓말이다. 가식적이다면서 분위기를 흐트러 놓았다(긍정적인 문제해결의 부재). 1년이라는 수용생활 중에도 다른 수행자들과의 신체적·언어적 싸움이 잦아 출소 3개월을 남겨두고는 독방으로 옮기게 되었으나(응보) 형을 마치고 출소 한 이후에는 가족의 긍정적인 지지로 인해 동일한 범죄를 일으키지 않고, 용접기술을 배워 회사원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상태이다(재사회화).

3.5.3 반대사례(Contrary case)

반대사례는 확실하게 해당 개념이 아닌 것에 대한 사례이다[12]. 다음 사례는 수형자 교정의 4가지 중요한 속성인 응보, 자기성찰, 긍정적인 문제해결, 재사회화 어느 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A씨는 2017년 12월 5일 53세 K씨의 오이농장 비닐하우스 앞에 세워둔 승용차량의 운전석 옆 팔걸이 보관함 지갑에 넣어둔 현금 60만원을 절취하여 절도혐의로 경찰서에 입건되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2년 10월 탈북해서 건설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며 짬뽕방과 PC방 등을 전전하며 살아오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 친구 집에 돈을 빌리러 가던 중 문이 열린 자동차가 있어 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차 문을 열고 팔걸이 보관함을 뒤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경찰조사 진행되는 동안에 만약 차 문이 잠겨 있었다면 문을 열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문을 열지 않았다면 돈을 훔치지도 않았을 것이다. 문단속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1차적으로 잘못이 있다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모습이 반복되었다(자기성찰의 부재). 피해자 K씨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라 조용히 마무리를 짓고 싶다.,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 순간적인 유혹으로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으면서

법적인 제재보다는 흠치간 현금만 돌려받고 싶다고 하였다. 하지만 A씨는 훔친 돈을 들고 달리다가 도랑에 빠뜨려서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돈을 받고 싶으면 직접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한번 찾아봐라., 문이 열리고 열쇠가 꼽힌 차를 훔치지 않은 것만으로 고마워해야 된다는 등 상황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였다(긍정적인 문제해결의 부재). 이후 A씨의 아내는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옆집에 사는 친구에게 60만원을 빌려와 K씨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면서 전달하였다. A씨는 절도건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고 경찰서를 나왔지만(응보의 부재) 지속되는 생활고로 인해 3개월 이후 대낮에 문이 열린 가정집에 들어가 금품과 현금을 훔치다가 현장에서 잡혀 절도혐의로 다시 경찰서에 입건되었다(재사회화의 부재).

3.5.4 창안된 사례(Invented case)

창안된 사례는 경험세계 밖에서 상상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 내는 사례이다[12]. 17세 M군은 술에 취한 70세 K씨의 가방을 훔치다가 지나가던 경찰에게 잡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2017년 12월 24일부터 2018년 3월 6일까지 서울, 경기도, 경북 등에서 30차례에 걸쳐 1억 6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사실이 드러나 특수절도로 3년의 형을 부여받고 K소년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수감 생활 중에도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언행이 지속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권 신장 및 사회적 통합 기능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응보). M군이 참여한 문화예술교육은 단순한 교정의 역할 뿐만 아니라 치료적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8주간의 프로그램 참가이후 M군의 모습을 교도관들은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 내면적인 성찰과 문화적 상상력을 통한 반성으로 반사회적인 요소가 감소되었고(자기성찰), 인지적 변화와 동시에 행동의 개선을 가져와 대인관계 및 자기조절능력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격성이 저하되었다(긍정적인 문제해결). 또한 긍정적인 상호작용 기술, 의사소통 기술 및 비판적 사고 기술, 자존감을 향상되어 우울한 성향이 감소되었다(긍정적인 문제해결).
- 책임감이 강화되었고(자기성찰), 공동체 의식과 사회성이 향상되었으며, 자율성과 표현성의 증가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

었다(재사회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M군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변화가 일어나 출소 이후 나도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서 용접 기술을 습득하는 등 적극적인 수행생활을 실천하여 모범수로 선정되어 2년 만에 가석방 되었다. 현재 M군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동일한 범죄를 일으키지 않고 생활하고 있다(재사회화).

3.6 개념의 선행요인과의 결과

선행요인은 개념의 발생 이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부수적인 조건을 말하며, 결과는 개념 발생 후에 나타나는 사건이나 부수적인 조건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행요인과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회적 상황을 잘 반영하며 속성을 다듬는데 도움이 된다[12]. 본 연구에서 확인된 수형자 교정의 속성을 중심으로 개념 발생 전에 나타나는 선행요인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적 소외나 배제로 인한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행위
- 2)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 및 구치소 등의 교정시설에 수용
- 3) 범죄에 대한 죄책감과 교도소 구금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
- 4) 경제, 의료 등에 대한 욕구와 갇셈에 대한 의지
- 5) 처벌과 처우의 분리
- 6) 수형자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제공, 직업훈련프로그램, 사회적응강화프로그램 등

수형자 교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과학적이고 개별화된 형법의 집행[28,29].
- 2)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수용환경 조성[27,29,30].
- 3) 범죄이전의 질적인 삶 추구[28,29,31,32].
- 4)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축[25-27,29].

이상에서 제시한 수형자 교정의 4가지 속성, 선행요인 및 결과를 기초하여 수형자 교정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다. 수형자 교정이란 법에 위반되는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학적이고 개별화된 형벌을 집행하고, 수형자의 내면적 성찰을 통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으로 문제해결과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이룩하여 재사회화 및 범죄로부터 국민과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7 개념의 경험적 준거

개념분석의 마지막 단계는 경험적 준거를 결정하는 것으로 어떤 개념이 있거나 발생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실제 현상에 대한 구분이나 범주이다[12]. 즉, 수형자 교정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준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미 널리 알려져서 사용되는 측정도구가 있다면 그 도구가 측정하려는 속성이 무엇인가를 확인한 후 개념분석과정에서 지적된 속성의 기준과 일치한다면 그대로 경험적 준거로 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형자의 규율위반 및 재범 시 사용되고 있는 수형자의 상담태도와 문제가 능성 평가도구[33]와 객관성 위험성 평가도구[34]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속성과 비교하여 확인되었던 경험적 준거는 다음과 같다.

- 수형자의 태도 및 문제가능성 : 수형자의 형벌 및 처우에 대한 태도, 교도관에 대한 태도, 피해자에 대한 태도, 현재문제의 심각성, 문제유발가능성, 재비행 및 위선행동가능성
- 수형자의 객관적인 위험성 : 공격성향, 범죄적인 사고 경향, 자포자기 경향
- 수형자의 규율위반과 재범 : 수용 중 징벌여부, 출소 후 재범여부

4. 논의

본 연구는 수형자 교정의 개념을 통합·분석하여 그 속성을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Walker와 Avant[12]의 방법으로 개념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개념분석 결과 수형자 교정의 주요 속성은 응보, 자기성찰, 긍정적인 문제해결, 재사회화로 나타났다. 선행요인으로는 사회적 소외나 배제로 인한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행위,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 및 구치소 등의 교정시설에 수용, 범죄에 대한 죄책감과 교도소 구금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 경제·의료 등에 대한 욕구와 갇셈에 대한 의지, 처벌과 처우의 분리, 수형자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으로 파악되었다. 선행요인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과학적이고 개별화된 형법의 집행,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수용환경 조성, 범죄 이전의 질적인 삶 추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축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형자 교정의 속성, 선행요인 및 결과를 맥락적 흐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수형자 교정의 첫 번째 속성은 ‘응보’로, 선행요인인 사회적 소외나 배제로 인한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행위,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 및 구치소 등의 교정시설에 수용과 관련성이 있으며, 그 결과는 과학적이고 개별화된 형의 집행으로 나타났다. 응보는 범죄자가 사회와 격리된 상황에서 범죄성에 대응하는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잠재적 범죄인이 될 수 있는 사회일반인의 규범의식을 강화시켜, 그들로 하여금 범죄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시켜 범죄로부터 사회와 국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들을 교육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21]. 이러한 결과는 범죄자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고, 교화·개선시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의 교정 개념[15]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속성은 ‘자기성찰’로, 선행요인인 범죄에 대한 죄책감과 교도소 구금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관련성이 있으며, 그 결과는 범죄 이전의 질적인 삶의 추구로 나타났다. 자기성찰은 자신의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24,27], 반사회적·반문화적·반규범적 행위를 이끈 일탈적 성격이나 행동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한다[21].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부적절한 부분을 자신의 힘으로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교육학의 교정 개념[17]과 유사하다. 범죄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은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하여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강한 내적동기를 부여한다[24]. 범죄자로 낙인찍히면서 지니게 되는 죄책감, 우울,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과 자립의지, 강점과 같은 내적자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속성은 ‘긍정적인 문제해결’로, 선행요인인 경제·의료 등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경쟁에 대한 의지와 관

련성이 있으며, 그 결과는 범죄 이전의 질적인 삶 추구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문제해결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 자신의 가족과 갈등관계에 직면하게 된 수형자가 범죄사건과 연계된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를 하거나 때로는 조정과 화해를 통해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고[24,27],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스스로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 그 단계별로 절차와 방법을 확인하고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학의 교정 개념[17]과 일맥상통한다. 범죄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은 법적 처벌보다 더 효과적인 선도와 예방의 결과를 가져온다[24]. 그러므로 개인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속성은 ‘재사회화’로, 선행요인인 처벌과 처우의 분리, 수형자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성이 있으며, 그 결과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수용환경 조성, 범죄이전의 질적인 삶 추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축으로 나타났다. 재사회화는 수형자는 범죄의 주체이며 처벌의 객체라는 사실 외에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며, 언젠가는 사회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생활하게 될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여겨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느끼는 것에서 시작된다[21]. 그리고 내외적 자주성과 주체적인 인격과 사회적 책임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범죄자는 사회에 복귀되어 죄를 짓지 않고 평범한 사회생활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에 편입될 수 있다[27].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통해 원만한 사회복귀로 재사회화를 도모하고자하는 사회복지학의 교정 개념[16]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한 사회인으로 타인과 화합할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수형자 교정의 개념 속성, 선행요인, 결과요인 등을 일부 학문분야에서 검색된 22편의 연구논문을 기반을 두고 있어 제한점이 있다. 그리고 수형자 교정의 개념분석을 위해 Walker와 Avant[12] 분석방법만을 사용하였으므로 개념의 사용과 맥락을 구별하는데 제한점

이 있으므로 추후 다른 개념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12]가 제시한 개념 분석 절차에 따라 수형자 교정에 대한 의미와 속성을 확인하였다. 개념 분석을 통해 확인된 수형자 교정의 정의는 법에 위반되는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교정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학적이고 개별화된 형벌을 집행하고, 수형자의 내면적 성찰을 통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문제해결과 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이룩하여 재사회화 및 범죄로부터 국민과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수형자 교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간호중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밝혀진 속성을 토대로 수형자 치료적 교정을 위한 각종 간호중재프로그램 개발 및 수형자 교정의 효과성 측정 도구 개발, 수형자 교정의 경험의 실제와 과정을 밝힐 수 있는 질적 연구의 수행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Institute of Justice. (2017). *2017 Crime Analysis*. Institute of Justice(Online). <https://www.ioj.go.kr/homepage/information/DataAction.do?method=list&pblMatlDivCd=01&top=4&sub=1#none>
- [2] E. D. Lee. (2015). Reflection on korea corrections since 1945: Focusing on the basic legal rights of inmates. *Correction Review*, 69(2), 41-79. DOI: 10.14819/krscs.2015.69.2.41
- [3] Korea Correctional Service. (2018). *Happy correctional service, happy nation*. Korea Correctional Service(Online). https://www.corrections.go.kr/HP/TCOR/cor_06/cor_0601/corrbook/new_corr.pdf.
- [4] M. Marcos, K. Bitna, C. Kelly, L. H. Nancy & G. L. Eric. (2013). The impact of correctional officer perceptions of inmates on job stress. *SAGE Open*, April-june, 1-13. DOI: 10.1177/2158244013489695
- [5] Y. H. Moon. (2008). Improvement program of correction and welfare through investigation of recovery judicial system. *Study of Correctional Welfare*, 12(2), 103-119.
- [6] H. C. Seong. (2013). Publicness in corrections. *Correctional Discourse*, 7(1), 103-134.
- [7] K. H. Cho. (2015). The development and significance of a humanistic corrections program. *Correctional Discourse*, 9(3), 1-33.
- [8] M. C. Kim, S. W. Lee & Y. H. Lee. (2015). Implementation and review of correctional mental health center programs for improving the social competence and reducing re-offending of mentally ill offenders. *Correction Review*, 69(4), 183-216. DOI: 10.14819/krscs.2015.69.7.183
- [9] Y. S. Kim & Y. J. Yoo. (2016). Improvement Measures for Intensive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r Prisoners. *Correction Review*, 72(3), 131-156. DOI: 10.14819/krscs.2016.26.3.6.131
- [10] Y. S. Park. (2014). A study on the HYO welfare system promotion method of correctional welfare dimension for the prevention of aged abuse crime. *Study of Correctional Welfare*, 34(3), 33-54.
- [11] G. J. Do & H. W. Cho. (2015). A Case Study on Solution-oriented Short-term Treatment for Released Prisoners Admitted to Residential Recovery and Protection Centers. *Study of Correctional Welfare*, 37(2), 141-170.
- [12] L. O Walker & K. C. Avant. (2011). *Strategies for theory construction in nursing*. Boston: Prentice Hall.
- [13] Naver Language Dictionary. (2018). *Corrections*. Naver Language Dictionary(Online). <https://krdic.naver.com/detail.nhn?docid=3997800>
- [14] Wikipedia. (2018). *Corrections*. Wikipedia(Online). <https://en.wikipedia.org/wiki/Corrections>
- [15] Polizeiwissenschaft Dictionary. (2018). *Corrections*. Naver Polizeiwissenschaft Dictionary(Online).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1403&cid=42149&categoryId=42149>
- [16] J. H. Chun. (2011). The study of the problem and meaning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theory involved in the divers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books. *Study of Correctional Welfare*, 21(1), 1-23.
- [17] S. H. Lee & B. M. Kim. (2006). The effects of 'error detection-correction instruction' on learning linear equations.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and Instruction*, 10(2), 461-483.
- [18] W. Y. Jang. (2009). A study on the proofreading of books in the joseon dynasty. *Bibliography Research*, 2(1), 521-554.

- [19] K. C. Choi, J. Y. Ha & W. Y. Kim. (2014). Surgical correction and osteosynthesis for cranial displaced pelvic nonunion: technical note and two cases report regarding anterior correction and osteosynthesis following posterior release. *Journal of Korean Fracture Society*, 27(2), 151-156. DOI: 10.12671/jkfs.2014.27.2.151
- [20] K. H. Cho & J. Y. Lee. (2014). Correction of hypertropia coexisting with intermittent exotropia. *The Korean Ophthalmological Society*, 55(12), 883-889. DOI: 10.3341/jkos.2014.55.12.1883
- [21] J. Cho. (2010). A study on the purpose of correction and human rights of the convict. *Journal of Korean Human Rights Welfare Institute*, 8(3), 1-28.
- [22] E. D. Lee & M. J. You. (2012). A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hardship o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of nurses in the correctional field. *Correctional Review*, 55(3), 129-155.
- [23] Canadian Nurse. (2010). Caring in corrections. *Canadian Nurse*, 106(4), 22-27.
- [24] Y. S. Kim. (2013). Case study of restorative justice at correctional stage in Korea. *Correctional Discourse*, 7(1), 273-296.
- [25] Y. H. Joo. (2015). Improvement plan of correctional welfare service for military prisoners: with emphasis on comparative study with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in foreign counties. *Study of Correctional Welfare*, 39(4), 181-206.
- [26] D. I. Lee & J. H. Chun. (2015). The study on the effect of the prison father school program on the rehabilitation of the prisoners. *Correctional Review*, 67(2), 127-153. DOI: 10.14819/krscs.2015.67.5. 127
- [27] G. W. Chang & H. S. Yoon. (2013).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the restorative program in a corrections. *Correctional Review*, 58(1), 7-33.
- [28] J. Y. Seo. (2012). Review on the vocational training program for inmates in prison. *Correctional Review*, 54(1), 185-207.
- [29] T. H. Kim. (2012). New vis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future of Korea correctional service. *Correctional Review*, 56(3), 163-189.
- [30] J. Graffam, A. J. Shinkfied & B. Lavelle. (2014). Recidivism among participants of an employment assistance program for prisoners and offen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8(3), 348-363. DOI: 10.1177/0306624X12470526
- [31] A. M. Cislo & R. Treatman. (2013). Challenges and solutions for conducting research in correctional settings: the U.S.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36(3), 304-310. DOI: 10.1016/j.ijlp.2013.04.002
- [32] A. Perron & D. Holmes. (2011). Constructing mentally ill inmates: nurses' discursive practices in corrections. *Nursing Inquiry*, 18(3), 191-204. DOI: 10.1111/j.1440-1800.2011.00526.x
- [33] S. J. Lee & J. E. Byun. (2001). Development of a tool of inmate classificat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0(2), 99-126.
- [34] S. J. Lee, Y. H. Lee & J. S. Gong. (2000). Development of a risk assessment tool for inmates. *Journal of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44(3), 105-130.

정 현 옥(Jung, Hyun Ok) [정회원]



- 2000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13년 8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정신전문간호사)
- 2018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2월 ~ 현재 : 대구지방교

정청 상주교도소 의료과

- 관심분야 : 정신건강, 질적연구
- E-Mail : juiris@hanmail.net

한 승 우(Han, Seung Woo) [정회원]



- 2011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15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경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 관심분야 : 고위험직군, PTSD
- E-Mail : woowool200@naver.com